

第225回國會  
(定期會)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1年11月29日(木)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501號)

議事日程

- 1. 소위원회구성의견

審査된案件

- 1. 소위원회선임의견 ..... 1

(09시46분 개의)

○委員長 姜在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국회(정기회)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1차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한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海鳳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鳳 委員 여러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咸承熙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咸承熙 委員 선배님들, 여러 가지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구성의견

(09시47분)

○委員長 姜在涉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구성의견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양당 간사에게 위임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여야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내용을 말씀드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각 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계법소위, 이 선거관계법소위에서는 지방자치법도 함께 취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6인, 정당관계법소위 6인, 국회관계법소위 4인으

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위원회에 어떤 위원님들께서 배치되느냐 하는 것은 간사위원님들 사이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그렇게 배정하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각 소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과거의 관례에 따라서 따로 정하지 않고 여야가 교대로 사회를 보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여야 간사들 간에 합의된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소위원회에 누가 배치되었는지, 어떤 소위원회로 구성하는지 확실히 공식화되었으니까 앞으로 각 소위에서는 빨리 소위원회를 열어서 정치개혁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심사할 대상의안들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 의안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정개특위 소관 의안현황이라고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많은 법안들이 와 있고 청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위별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하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商守 委員 지난번에 우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 금년 초에 구성되었을 때 안을 각 정당에서 내고 또 그것을 논의하다가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구성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지금 별다른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소위가 좀 활발히 가동되어 가지고 우리 정기국회 동안에, 우선 모든 부문의 개혁할 것을 이번에 다 개혁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가능한 부분은 도출해서 합의가능한 것부터 이번에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더 논의해야 할 것은 또 내년에 처리해도 되는 것이니까 모든 것을 이번에 다 합의해 가지고 처리한다기 보다는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자 이렇게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선거관계법에 관해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선거는 내년에 이미 코앞에 닥쳤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궁금해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여야 간에 서로 안을 빨리 내놓고 그 다음에 내놓은 안을 가지고 합의가능한 것부터 합의해 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서 우선 내년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거관계법 소위에 관해서는 내일 우리가 선거관계법 소위를 열도록 우리 소위 간사들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심사에 들어가서 가능한한 결론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부 좀 합심해서 이번에 많은 결론들이 도출되어서 합의해 가지고 국민들 앞에 뭔가 좀 내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姜在涉** 元裕哲 위원님.

○**元裕哲 委員** 전체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선거관계법에 관련되어서 토론을 거치고 그래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도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조속하게 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2시에 선거관계법 소위를 할 때에 우리 당의 당론을 갖고 갈 테니까 한나라당에

서도 갖고 나오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安商守 委員**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에서도 당론을 결집해 가지고 수차의 토론을 거쳐서 자체 안이 이미 다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 그 안을 제출할 테니까 각 당의 당론을 가지고 합의가능한 것부터 도출해 나가도록, 합의하도록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두 분 위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이 기회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의 만기일이 금년 연말입니다. 연말이면 또 만약 더 개혁할 부분이 남아 있다면 연장을 필요하면 원내총무들이 해 주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몇 번 연장을 했는데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또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安商守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 6월에 지방자치선거가 있는데 많은 입지자들이 이 선거가 어떤 형식으로 치러지는 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꼭 선거에 임박해서 여러 가지 선거법이 타결됨으로 해서 우리 국회가 늘 벼랑 끝에 가서 합의해 주는 그런 나쁜 관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개혁특위만이라도 정치개혁을 한다면서 늘상 관례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 중에, 정기국회가 내주 말에 끝납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각 소위별로 협상에 박차를 가해서 적어도 지방자치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이번에 합의 통과될 수 있도록 밤을 새워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바쁜 소위가 아무래도 선거관계법 소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당관계법 소위에도 이번에 무슨 지방자치하고 관련지어서 통과시킬 때 부수적으로 통과시켜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국회관계법에도 지금 현안으로 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야총무들 간에 매일 서로 다투고 있는 부분이 우리 특위의 무슨 인사청문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급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관계법 소위도 빨리 가동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咸承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在涉 예, 威承熙 위원님.

○威承熙 委員 지금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니까 날마다 한 파트에 세 분씩 세 분씩 또 정치관계법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국회관계법에 상정된 의제만도 24건이군요.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고 또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로 아납니까?

우리들이 일상 부딪혀서 항상 법에 맞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부분이고 국정감사및조사에 관한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하여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법은 들여다봐야 될 만큼 중요한 법들인데 이것은 왜 위원이 둘씩밖에 안 되었나 싶고 정당관계법은 보니까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하나밖에 상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심사하는 분은 세 분씩이고 국회관계법은 이렇게 많은 안전에 위원 두 분만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회관계법들이라는 것은 국회의사진행, 국회의 전반적인 진행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상 국회의사진행에 관련되어서 현장감 있는 분들 말하자면 총무단에 속한 분들 이분들이 가장 이런 부분은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대단히 예민하게 알 수 있는 분들이어야 더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야당위원님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威承熙, 金成鎬 다 총무의 경험이 전혀 없는 총무단에서 일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權琪述, 朴承國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좀더 국회관계법을 진짜 우리가 법에 맞는 국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절하게 국회관계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충분한 노하우와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갖춘 분들로 배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숫자도 법안의 과정에서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姜在涉 예, 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내총무들한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까지 추가해서 검토를 하는 마당에 각 당 8명은 인원이 너무 적다 그래서 각 당 2명씩 더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여야총무들 사이에 한나라당 2명, 민주당 2명을 추가해 주는 그런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본회의 의결을 하려고 하는 직전에 자민련에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왜 우리를 1명 더 배치를 안 하느냐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지금 계속 자

민련하고 3명이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2명이 들어오면 우선 1명을 국회관계법 소위에 넣어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참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은 보면 그런 威 위원님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수석부총무를 하시는 朴承國 위원이 여기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교섭단체 당신네 편리에 의해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슈가 국회관계법에 많아지면 또 정당관계 소위에 있던 분을 여기로 배정할 수도 있고 탄력있게 그렇게 운영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우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우리 朴炳錫 위원님 인사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朴炳錫 委員 예, 존경하는 선배님들 말씀도 잘 경청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뜻을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존경하는 安商守 위원님께서 지자체관련법 예비후보자들의 예측가능성에 대해서 시급히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동하고 첫 조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在涉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부 박차를 가해서 가동을 하기로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다른 안전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산회)

○出席委員(15人)

姜在涉	權琪述	金民錫	朴炳錫
朴承國	朴柱宣	宋永吉	安商守
元裕哲	李海鳳	鄭文和	趙培淑
曹正茂	威承熙	許泰烈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입법심의회관	文濟豐
입법심의회관	鞠慶福